

사생활 무관하다 할망당인 골프프로 양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디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라봉**
(임핑 동원드IC 영수증 프린트 게시)
- 무전시 9월 이후 **출발요양정신체 실시**
- 예약 : www.rpdynasty.co.kr 0801-320-7700



비너스 윌리엄스



서리나 윌리엄스

‘흑진주 자매’ 양보없는 한판 승부

‘흑진주’ 윌리엄스 자매가 시즌 세 번째 그랜드슬램 대회인 윌블던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언니 비너스(7위·미국)는 4일 영국 윌블던 올림피아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여자단식 4강에서 엘레나 데멘티에바(5위·러시아)를 2-0(6-1 7-6(3))으로 완파했다.

2000년과 2001년, 2005년에도 윌블던 정상에 올랐던 윌리엄스는 이 대회에서 통산 다섯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또 최근 9년간 윌블던에서 7번이나 결승에 올라 유독 이 대회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경기 시작 20분 만에 게임스코어 4-0을 만들어 기선을 잡은 윌리엄스는 6-1로 가볍게 첫 세트를 따냈다.

2세트에서도 초반 기세는 단연 윌리엄스 쪽이었다. 데멘티에바의 첫 서브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게임스코어 2-0으로 달아났다.

이후 데멘티에바에게 연속 2게임을 내줘 타이브레이크까지 끌려갔던 비너스는 타이브레

이크 초반 2-3으로 뒤졌으나 이후 내리 5포인트를 따내 승부를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동생 서리나(6위·미국)가 이번 대회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정지애(133위·중국)를 역시 2-0(6-2 7-6(5))으로 물리쳤다.

서리나는 2세트에서 세트포인트를 내주는 등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침착하게 이를 넘기며 언니와 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한 세트도 뺏기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윌리엄스 자매는 공교롭게도 여자복식에서 한 조로 출전해 4강에 올라있는데

단식에서는 우승을 놓고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둘의 상대 전적은 8승7패로 동생이 앞서 있고 2002년과 2003년 이 대회 결승에서 맞붙어 역시 모두 서리나가 승리했다.

결승전 상대 전적에서도 6승2패로 서리나의 우세다. 메이저대회 결승에서 맞붙었던 것은 2003년 윌블던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 1위 아나스타비치(세르비아)를 물리치는 등 볼품의 주인공이었던 정지애는 이날도 정지애는 좋은 경기 내용으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정지애는 게임스코어 6-5로 앞선 2세트 윌리엄스의 서브 게임에서 40-30으로 앞서 세트를 따내기 일보직전까지 갔으나 최후의 서브 리턴이 네트에 걸려 타이브레이크를 허용했다.

타이브레이크에서도 0-3으로 끌려가다 5-5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보였으나 내리 2실점, 끝내 서리나의 벽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박찬호 내일 선발 확실시” AP통신 보도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박찬호(35)가 6일(이하 한국시간) 다시 한 번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토레 감독은 6일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방문 경기에 박찬호를 선발로 내보내겠다고 말했다고 4일 AP 통신이 보도했다.

토레 감독은 최근 좌완 선발 클레이튼 커쇼(20)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며 ‘데리 로-에릭 스틸츠-구로다 히로키-제드 빌링슬러-브래드 페니’로 이어지는 5선발진을 구성했다.

박찬호의 등판은 이 가운데 지난달 15일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페니의 회복이 늦어짐에 따른 ‘임시 선발’ 성격으로, 박찬호는 다음주께 페니가 팀에 합류하면 다시 불펜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찬호와 맞대결이 유력한 선수는 배리 지토이다. 지토는 올 시즌 3승12패와 평균자책점 5.99로 끝없는 부진을 겪고 있어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 지난 2일 휴스턴과 경기에서 행운의 구원승으로 시즌 4승째를 거둔 박찬호는 올해 4승2패1세이브와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8일 개막

휠체어테니스 등 16개 종목 선수단 600명 참가 열전 6일

광주시는 4일 “제1회 광주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시립 장애인복지관 체육관에서 개막돼 13일 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선수단 인원 등 6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다.

주요 종목으로 휠체어테니스, 좌식배구, 론볼 등 16개 종목이 열리며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한 경기력 강화의 의미도 있다.

대회 개막일인 8일에는 제28회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광주시 선수단 강화훈련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월 6일부터 4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3개 종목 450여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3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세미 윌트-피터 아츠 9월 서울서 K-1 대결

입식 타격의 최강자 세미 윌트(35·네덜란드)가 9월 서울에서 치러질 K-1 대회에 출전해 피터 아츠(38·네덜란드)와 맞붙는다.

K-1 주최사 FEG는 4일 “윌트가 9월27일 서울시 송파구 바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16강 토너먼트에서 아츠와 대결하는 대전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격투기 무대 복귀를 선언한 최홍만(28)도 출전 예정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FEG는 “출전 자격을 갖췄다는 뜻이지 출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레미 본야스키(32·네덜란드)와 제롬 뮈너(36·프랑스), 글라우베 페이토자(35·브라질) 등 유명 격투기 스타들도 출전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수영 황제’ 펠프스 올림픽 8관왕 도전

베이징올림픽에서 꿈의 8관왕을 노리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3)가 출전 종목은 8개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펠프스는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펼쳐진 미국 올림픽 대표 선발전 다섯째 날 남자 배영 200m 예선 출전을 포기했다.

대회 개막 전 선발전에서 9개 종목에 뛰겠다고 목표를 5개 종목으로 크게 줄인 것이다.

펠프스는 대회 첫날인 1일 자유형 400m에 이어 이틀 날 배영 100m 출전까지 포기하더니 이틀 뒤인 3일에는 자유형 100m 예선만 뛰고 준결승에는 나서지 않는 등 이미 3개 종목을 목표로 제외했다.

출전 신청을 한 종목 가운데 남은 것은 개인혼영 200m와 접영 100m 뿐. 이 두 종목은 펠프스가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우승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혼영 400m와 자유형 200m, 접영 200m까지 3개 종목의 출전권을 확보한 펠프스는 5개 개인종목에 출전하게 된 셈이다.

여기에 계영 400m와 800m, 혼계영 400m까지 더해 베이징에서 펠프스가 뛰는 종목은 총 8개가 되는 것이다.

펠프스를 전담 지도하는 밥 바우먼 코치는 일부 종목 포기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가지 옵션을 갖고 가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충분히 성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남자 평영 200m 결승에서는 이번이 일어났다.

일본의 아테네올림픽 평영 2관왕 기타지마 고스케의 올림픽 최대 라이벌인 브랜든 헨슨이 2분11초37로 4위에 머물면서 출전권 획득에 실패한 것. 이 종목 1위는 스코트 스캔(2분09초97)이 차지했다.

헨슨은 이로써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평영 100m에서만 기타지마와 올림픽 금메달 경쟁을 펼치게 됐다.

‘지존’ 신지애에 역전 불허 홍란 “시즌 2승”

레이크사이드 여자오픈골프 최종

“신지애가 무섭긴 하지만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느냐.”

최종 라운드에서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와 맞대결을 앞둔 홍란(22·면심웨어)은 여유가 넘쳤다.

홍란은 4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서코스(파72·6천533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MBC투어 레이크사이드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4일 열린 레이크사이드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04타로 우승한 홍란이 우승컵을 안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막판 뒤집기를 노렸던 신지애는 2타 밖에 줄이지 못해 4위(8언더파 208타)에 머물렀다. US여자오픈이 끝나자마자 귀국해 시차 적응도 없이 출전을 강행한 신지애는 역전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사흘 연속 언더파 행진을 펼치고 상금 랭킹 1위(4억1천만원)와 다승 1위 지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4위 상금 2천만원을 챙긴 신지애는 2년 연속 상금 4억원을 넘겼다.

홍란의 우승은 지난달 22일 KB국민은행스타투어 2차대회에서 데뷔 이후 3년 동안 미루고 미뤘던 첫 우승을 따낸 지 2주 만에 따낸 두 번째 영예. 더구나 최종 라운드에서 유난히 역전승이 많아 공포의 대상이던 신지애와 동반 플레이에서 일방적인 리드를 지킨 끝에 수확한 우승이라 값어치가 더했다.

눈물을 펄펄 쏟았던 감격의 첫 우승 때는 속편 말로 ‘주웠다’는 농담도 없지 않았다. 앞서 가던 선수들이 줄줄이 비바람에 주저앉은 덕에 18번홀 그린 앞에서 기다리다 얼

떨결에 우승컵을 안았던 홍란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1라운드부터 최종 라운드까지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는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이고 최종 라운드에서는 신지애 뿐 아니라 강력한 신인왕 후보 최혜용(18·LIG)의 끈질긴 추격도 제압했다.

일주일 전 생애 첫 정상에 올랐던 최혜용은 3타를 줄여 박보배(22·에스오일)와 3타 차 공동 2위(9언더파 207타)에 올랐다. 시즌 네번째 준우승을 차지한 최혜용은 신인왕 레이스 포인트에서 라이벌 유소연(19·하이마트)과 간격을 더 좁혔다.

최경주 2언더 13위...부진 탈출 신호탄

PGA AT&T내셔널 1R

체중조절 후유증을 겪고 있던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타이틀 방어전에서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최경주는 4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풍그레셔널골프장 블루코스(파70·7천255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내셔널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선두 스티브 마리노(미국·65타)에 3타 뒤진 공동 13위에 오른 최경주는 최근 5개 대회 14라운드에 걸쳐 한 번도 언더파 스코어

를 내지 못했던 부진을 끊은 것이 반가웠다.

최경주는 셀휴스턴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친 이후 언더파가 없었고 특히 60대 스코어는 셀휴스턴오픈 3라운드(69타) 이후 16라운드 만이다.

새로 맞춘 클럽이 아직 손에 익지 않아 티샷과 아이언샷 정확도는 절반 가량에 그쳤지만 보기 위기를 대부분 넘긴 쇼트게임이 돋보였다.

무려 22명의 선수가 3타 이내 차이로 선두권을 점령하는 등 첫날부터 우승 경쟁은 치열했다.

차세대 기대주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도 3언더파 67타를 땀내내 6위그룹에 합류, 시즌 두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